

本新聞大學院開院式

總 長 致 辭

經濟學博士 崔 文 煥

親愛하는 學生諸君

本人은 서울大學校에 新設된 新聞大學院의 첫번째 學生으로서 오늘 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것을 衷心으로 기뻐하는 바입니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新聞, 放送, 出版, 映畫 等 이른바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는 比重은 나날이 增大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機關에 從事하는 諸君들의 指導的役割이 重且大함은 再言의 必要조차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現在 우리나라의 言論界는 國家의 近代의發展이라는 學族的目標에 積極參與하는 姿勢를 取하면서 合理的이고 具體的인 方案을 摸索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은 近世民主社會의 發展過程에서 다같이 市民의 權利, 創意性 自由를 伸長시키면서 社會發展을 促進시키는 에너지의 두개 源泉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境遇에는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은 抗日鬪爭과 反獨裁抗拒運動에 있어서 中樞役割을 遂行해 왔습니다.

近年에 와서 매스·미디어의 量的 質的 向上은 大衆教育이란 重要한 社會的機能을 一層 擴大시키고 있습니다.

分化擴大 되어가는 現代社會에서는 教育의 對象과 內容도 無限히 增大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傳統的인 教育의 制度 및 形式만으로 卡버하기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教育이 國民의 多樣多岐한 日常生活과 더욱 密接한 關聯性을 가지고 있는 大衆社會에 있어서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社會教育的 比重은 至大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諸君들은 或은 實際的인 分野에서 或은 理論的인 面에서의 研究와 그 研究成果의 現實適用을 通해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橋梁的役割을 擔當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創造的 “에리트”인 諸君들에 對해서 發展途上의 우리社會는 “파이어니아”에의 期待를 걸고 있습니다.

이 期待는 目的達成에 무거운 責任感을 여러분께 要求하는 것입니다.

諸君의 自重自愛와 堅實한 學究生活를 當부하는 바입니다.